

한국경제

부산은행, BNK부산은행 소장품전 '시간을 담다' 개최

김태현 기자 | 2021. 03. 17

4/21(수)까지 신창동 아트시네마 2층 부산은행 갤러리에서 열려

부산은행 청년작가 미술대전 수상작 등 미술작가 18인의 작품 전시



BNK부산은행은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신창동 아트시네마 2층 부산은행 갤러리에서 소장품전을 4월 21일까지 연다고 17일 밝혔다.

‘시간을 담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소장품전에는 부산은행 청년작가 미술대전에서 수상한 개성 있는 신진작가들(강다현, 김한샘, 허찬미 등)의 수상작 등 미술작가 18인의 작품 19점이 전시된다.

소나무를 다룬 구명본 작가, 부산 곳곳의 풍경을 표현한 윤종철 원로작가의 작품과 채각(彩刻)기법을 활용해 도시와 환경의 공존을 묘사한 박기훈 작가의 작품 등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회화작품들도 만나볼 수 있다.

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출처]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3172367h>)